

<b>민 진 전</b>	<h1>BUDDHANARA</h1>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매달 셋째주 토요일 10시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이달의 법구경: -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응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003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운명에 대한 세가지 오해

부처님이 사위성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일체가 숙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과, 일체가 존우(尊祐)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체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리가 아니며 옳지 않다. 어째서 그런가.

만약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숙명으로 이루어졌다든가, 존우의 뜻에 의한 것이라든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과 같은 10 가지 악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숙명적인 것이거나, 존우의 뜻에 의한 것이거나, 인도 없고 연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주장은 진리가 아니며 옳지 않다. 만약 그런 주장들이 진리라면 사람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모를 것이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모를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은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하여 일어난다. 육계(地水火風空識)가 합함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태에 태어나고, 그로 인하여 육처(眼耳鼻舌身意)가 생기고 육처로 인하여 감각이 생기고, 감각으로 인하여 집착이 생기며, 집착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일어난다. 괴로움을 떨하고 참다운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괴로움의 현실을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야 하며, 괴로움이 멸한 상태를 증득해야 하며, 괴로움을 떨하는 도를 닦아야 한다.

- 중아함 제 3 권 13 경 <도경(度經)> -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다. 기독교, 마호멧교, 힌두교, 도교, 태양교, 심지어는 돈교와 섹스교까지 있다. 이들 종교가 인간의 운명 문제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는 숙명론이다. 인간의 운명은 미리 결정돼 있다는 것이다. 별자리로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들먹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존우화작론(尊祐化作論) 즉 신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에게 빌고 제사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는 우연론이다. 아무도 운명을 지배하는 것은 없으며 어떻게든 잘먹고 놀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일종의 쾌락주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결정적인 모순이 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주체가 없다.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다 숙명이거나 신의 뜻이거나 우연이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부처님은 이를 삼종외도(三種外道)라 했다. 세 가지 모두 진리가 아니며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가. 모든 존재나 사건은 인(因)과 연(緣)이 합쳐져서 일어난다는 불교의 인연생기론(因緣生起論) 즉 연기론만이 옳은 진리다. 그래야 행위의 책임주체도 있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할 올바른 방편도 생기게 된다. 그 방법이란 바로 괴로움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 원인을 단멸하며, 괴로움을 떨하는 도를 닦아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사제팔정도(四諦八正道)가 그것이다. 이것이 불교가 일반종교와 다른 특징 중의 특징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불교 안에 부처님이 비판한 삼종외도적 생각이 틈입하고 있다. ‘정법천하’를 위해 어떤 것이 그런 것들인지 살펴볼 일이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 방담-사찰신도회 현황조사와 문제점

### 승.재가 함께 가는 신행공동체로

사찰신도회는 사찰의 구심점이자 한국불교의 원동력이다. 신도의 신행과 수행력은 종단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 개월간 조사한 사찰신도회 현황조사 결과를 해외포교의 구심점이 되는 승가와 재가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자 불국사 소식지에도 그 결과를 불교신문에서 발췌해서 실는다.

김웅철: 신도회를 바라보는 입장차이를 조율하고 공동의 목표와 이념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신도조직은 포교와 신도교육이 병행돼야 된다. 신도들이 조직화되면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평가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연속선상에서 이뤄져야만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

임동현: 신도회 필요성의 정립은 당위만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겨야 한다. 신도회 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폭을 종단 집행부와 함께 일반신도들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조직화의 방향은 70~80년대 조직개념과는 달라져야 한다. 이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말하고 조직을 동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조직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김: 종교조직은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서원을 위한 규제만이 존재하고 조직의 기여도를 일반화할 수 없는 조직의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이 최근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수직적 구조에서는 일하기 꺼려하고 자신이 신도회에서 일하는 것을 종교적 체험으로 인식하는데, 이런 경향이 단위사찰의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일스님: 신도회는 신행공동체로 가야 한다. 사찰의 주인이 스님, 신도, 종단인가에 대한 답이 신도회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찰은 신행공동체이고 스님과 신도는 분리할 수 없다.

김: 물질 토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의 기여도가 타종교에 비해 크지 않은 사찰이 많다. 특히 공찰이나 전통사찰의 경우 이미 있던 절에 와서 신도들이 신행활동을 하고 있어 사찰 스님들이 신도들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스님: 신도회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가치와 방향, 신앙.수행공동체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돼야 한다. 조사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실태를 파악하고 사실에 입각한 지역적 특성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임: 현재의 신행양태는 초하루기도를 중심으로 신도대중이 형성이 돼있다. 그들의 신행문화가 개별적이다. 함께 모여 신행을 이루는 것이 적다. 그러다보니 신행문화의 토대가 없다. 종단차원의 중.장기적 저변의 신행문화 토대로 바꿀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 규모는 작지만 서울 홍제동 금장사의 경우 신도교육에 주력한다. 매주 금요일 스님과 함께 경전을 중심으로 30~40 여명이 모여 공부한다. 신도회 결속력도 높아 화엄장학회를 만들어 한달에 한번 장학기금 전달하기도 한다. 북한산 노적사 경우 기도중심으로 신도들이 뭉쳐있어 다른 활동도 있지만 기도생활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보시.봉사활동으로 의미를 확산시킨다. 신도회가 미약한 사찰은 대부분 중심된 컨셉이 없다. 기도, 교육, 봉사 등 중심축으로 사찰의 특성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님: 초심자 불교입문 동기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신의 본원적인 물음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조계종 전통수행법 간화선으로 성공한 안국선원 같은 경우 선 수행 중심으로 신도조직의 체계를 잡았다.

임: 서울에서 상당히 우수한 사찰의 불교대학에 여러 우수한 자원들이 입학을 한다. 졸업생들이 사찰의 중심적인 신앙체계로 흡수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초하루법회, 일요법회 등으로 흡수해야 하는데 현재 사찰의 일요법회와 초하루법회 수준으로는 그들을 끌어 모을 수 없다.

김: 신도교육이 중요하다. 이제는 본질적으로 신도교육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기본교리 중심의 신도교육이 갖는 한계가 교리와 신심유지와 실천과 연계가 안 되는 경향이 있다. 근본교설은 그 자체가 신앙이고 또 실천이고 지혜다.

정: 신도회는 신도 본연의 욕구를 실현시켜주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도량을 필요로 하고 도반과 스승을 필요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신도회는 도반, 도량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신도회는 함께 탁마하고 공부해 나가는 도반의 역할이 필요하다.

임: 신도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상징적 행위가 신도회장 선출이기 때문에 신도회 회장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신도회에서 자율적 선임해 스님의 추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조직적 조건이 열악해도 재가자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고 책임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정: 모든 신도들이 1인 1수행법을 가져야 한다. 신도회도 자기 나름대로 수행법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탁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신도회가 고민해야 한다. 또 하나는 1인 1신행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인 1봉사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나간다면 신도회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김: 외부의 자극을 줘서라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종단에서 정책으로 주지스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신도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주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신도들은 헌신과 봉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스님들도 해당된다. 군림과 대항은 갈등관계로 밖에 갈 수 없다.

스님: 이제는 불사문화 중심의 사찰문화에서, 불사 이후의 대안을 찾는 수행이라는 패러다임을 조장해야 하고 이런 역할을 신도회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신과 봉사를 바탕으로 한 수행력과 지도력이 우선돼야 한다. 자발적 결의를 정착시키고 유도하는 데서 신도회의 역할은 시작된다.

정리= 불교신문 하정은.허정철기자

## 사경(寫經): 경전을 베껴 쓰는 것

사경은 무엇이고, 왜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지금부터 2547 년전에 열반하셨다. 부처님의 열반이후에도 불교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法)이 있었고 또 그 가르침이 여러 사람에게 계속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인쇄술(印刷術)은 물론, 종이도 발명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졌다. 네 차례 진행된 결집(結集)은 바로 이 구전(口傳)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문자와 종이의 발명으로 부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구전으로만 전해지지 않았다. 바로 경전이 탄생한 것이다. 또한 불교의 융성은 많은 지역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알고 싶어했으며, 이는 경전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번에 많은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술이 출현하기 전까지 이 몫은 오로지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바로 사경(寫經)이다. 경전을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이다. 즉, 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종교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초기 불교에서 사경은 공덕을 쌓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였으며, 그 의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 사경은 단순히 경을 옮기는 것 이외에 그 이면에는 자신의 신앙과 수행이 깃들여 있다. 사경을 할 때 일자일례(一字一禮), 일자삼례(一字三禮)를 하는데 이는 글 한자를 쓰면서 절을 한번 하거나 세 번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예로써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인쇄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현대과학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쉽게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귀한 말씀을 스쳐 가는 바람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듣는 이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불교신문 박기련 기자

## 법회소식 NEWS

- 올해에만 불국사에서 4 명의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10 월 초에는 미주리주 콜롬비아에 거주하고 계신 이오 불자님집에 새 식구가 탄생하고, 두달후에는 일리노이주 콜롬비아에 거주하고 계신 여태호 불자님택에서도 새 식구가 탄생합니다. 축하 드립니다. 부디 순산하시길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 9 월 28 일 바람도 선선하고 화창하고 맑은 일요일날에 Ackert's Farm 에서 가진 야외법회는 흥법 문정모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신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야외법회에 동참하지 못하신 불자님들은 다음 야외법회에서는 같이 뜻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기도올립니다. 야외법회 사진등은 불국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입니다.
- 2004 년 달력과 법당 카페트 시주를 받습니다. 동참하실 뜻이 계신 불자님들은 미국은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 (314)993-0185 )로 연락 해주고, 한국은 불국회 (불국사 후원회: 후원회 총무 청정행 정혜주 보살님 (02) 375-5812)로 연락 주십시오.
- 최은경, 전순영, 김재상, 김효정 불자님들의 시주로 불국사 사무실에 새 컴퓨터와 프린터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해산 이창호 거사님께서 남자 샤워실 공사비로 \$1,000 불을 시주해 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국회에서는 올해에는 서울 칠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로원인 안양원으로 김장 담아주기 불사를 하러 11 월경에 봉사하러 갑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동참하실 뜻이 계신분은 후원회로 연락 주십시오.
- 2004 년 달력시주 동참자: 박계영, 이정상, 이종택, 김희석, 정노미, 용담 김태완 거사님등 양로원 안양원 김장 배추 시주 동참자: 강유경 불자님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주의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시고 업장 소멸 하시기를 축원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